





서양 복식



참고문헌: 서양복식문화사, 예지각, 2008

고대 로마 복식





명칭	그림자료	영상매체자료	특징
토가			<p>-그리스의 ()에서 발전된 것으로 반원형, 타원형, 팔각형의 천을 접어 몸에 둘러 입는데 로마 ()만이 입었고, 신분에 따라 색, 장식, 입는 방법이 달랐다.</p> <p>-토가는 로마의 ()으로 초기에는 남녀노소 모두 착용하다가 제정시대부터는 ()으로 지배계급의 남자들만 입었다.</p> <p>-토가가 너무 커지면서 의식 때만 입고, ()를 평상복으로 입었다.</p> <p>-일반인들은 간단한 ()를 입었고, 황제, 상류계급의 사람들은 클라비로 가장자리를 댄 토가를 입었다.</p>
튜니카			<p>-그리스의 도릭 키톤이 변화·발달된 () 형식의 옷으로 초기에는 ()으로 입었으나, 토가가 거창해지자 토가 대신 평상복으로 입었다.</p> <p>-제정 말기에 귀족들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()를 붙였다.</p>

<p>스톨라</p>			<p>-그리스의 ()에 해당하는데 남자들은 주로 튜니카를 입고 여자들은 튜니카보다 넓은 스톨라를 입었다. -스톨라 속에는 소매가 없는 ()를 입기도 했다.</p>
<p>팔라</p>			<p>-그리스의 히마티온이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여자가 입는 것을 ()라 하고, 남자가 입는 것을 ()이라고 했다. -토가와 비슷한 직사각형의 천으로 되어 있으며, 주로 ()이다.</p>

고대복식-로마인의 머리와 머리장식

명칭	그림자료	영상매체자료	특징
			<p>- 귀부인들은 이용사의 도움을 받아 가발을 다듬거나 () 및 ()을 하여 적·자색 등의 머리띠로 감싸거나 원추형으로 쌓아올리는 데 여러 시간을 소비하곤 했다.</p> <p>-로마의 여성들은 금발을 좋아하여 블론드의 인모를 수입하거나 비누를 구입하여 흑색이나 갈색으로 물들였다.</p> <p>-로마 초기에 남자들은 ()와 ()을 길렀으나 후기에는 머리와 수염을 짧게 깎았고 머리카락이 곱슬거리게 손질을 하였다.</p> <p>-로마의 신부는 붉은 망으로 머리를 정리한 후 머리 위에 6층의 롤을 쌓고 오렌지색이나 심홍색 베일로 덮어 이마를 깊이 가렸다. 그리스도교 인 신부는 백색이나 자주색 베일을 썼다.</p> <p>-로마의 복식은 독창적이라기보다는 그리스적인 것의 계승이었고 단지 의상의 부피가 커져 양감이 더욱 강조되었을 뿐이다. 두발형식 및 두식 역시 그리스의 것으로부터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화려해졌다.</p> <p>-제식에서는 토가의 한 끝을 사용하여 얼굴을 감추는 관습이 있었으며 그리스 신부의 백색 베일이 로마에 와서 그리스도교 신부의 것으로 사용되고 로마인들은 심홍색이나 오렌지색 베일을 썼다.</p>

중세 복식-비잔틴 복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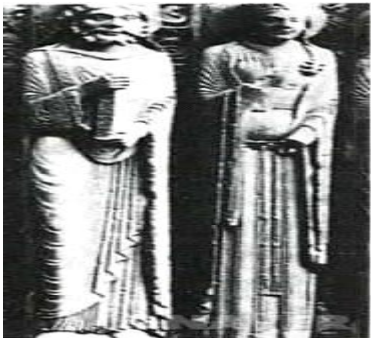



명칭	그림자료	영상매체자료	특징
팔루 다멘툼			<p>-비잔틴의 대표적인 의복이다.</p> <p>-() 또는 ()의 천을 두르고 오른쪽 어깨에 장식핀으로 고정시킨 것이다.</p>
달마 티카			<p>-1세기쯤 달마티카 지방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입기 시작한 옷으로 펼쳐 놓으면 십자가의 형태를 이루며, 어깨부터 아랫단까지 그리고 소매 끝동에 ()를 보라색이나 붉은 색으로 장식하였다.</p> <p>-그 후 서유럽에 비잔틴의 대표적인 의복으로 전래되어 () 이전까지 중세복의 기본을 이루었다.</p>

<p>튜닉</p>			<p>-간단한 T자형의 원피스 드레스로 튜닉의 양옆은 활동을 위해 트임을 한 것이 많았으며, 추울 때는 언더 튜닉을 입기도 했다.</p>
<p>브라코</p>			<p>-무릎이나 발목까지 오는 바지로 남자들이 짧은 ()밑에 입었으며, 서양 바지의 원조라 할 수 있다.</p>
<p>로룸</p>			<p>-로마의 토가가 팔라움과 팔라에 의해 점차 착용하지 않게 되자, 비잔틴에 들어서 왕족들의 장식적인 띠로 변한 것이다.</p>

중세 복식-비잔틴 복식

명칭	그림자료	영상매체자료	특징
파에 놀라			<p>-() 형식의 길이가 긴 케이프로 로마에서는 겹옷으로 입던 것이 비잔틴에서는 사제복이 되었으며, 기본형은 현대 ()의 전례복인 케수블레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.</p>

중세 복식-로마네스크 양식의 복식

명칭	그림자료	영상매체자료	특징
블리오			<p>-11세기 초, 옷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진 겹에 입는 ()이다.</p> <p>-블리오 위에는 ()라는 소매 없는 재킷을 입거나 허리에 넓은 천을 감아 허리선을 강조하기도 한다.</p> <p>-남자들의 블리오는 무릎길이이고 허리에서는 벨트를 하여 허리에 주름이 생기게 되었다.</p> <p>-옷감은 동양에서 수입해 온 부드러운 견직물이나 모슬린을 사용하여 잔 주름이 생기도록 하였다.</p>
생즈			<p>-언더 튜닉의 다른 명칭으로 ()형의 원피스를 13세기부터는 ()라고 했다.</p>
코르사주			<p>-여자들이 () 위에 입는 소매 없는 ()의 옷이다.</p>

<p>망토</p>			<p>-남자의 망토는 11세기경까지 무릎길이의 짧은 것이 많았고 직사각형, 반원형, 타원형이 많았으나 블리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망토도 길어졌다.</p>
<p>브레</p>			<p>-()이나 ()로 만들었으며 일반 서민남자들이 ()과 함께 입었다.</p>